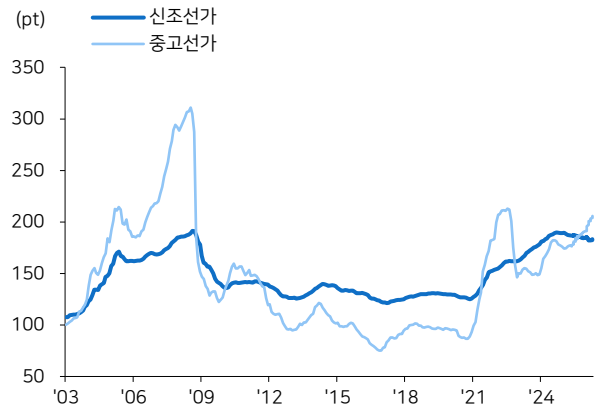
2026. 4. 22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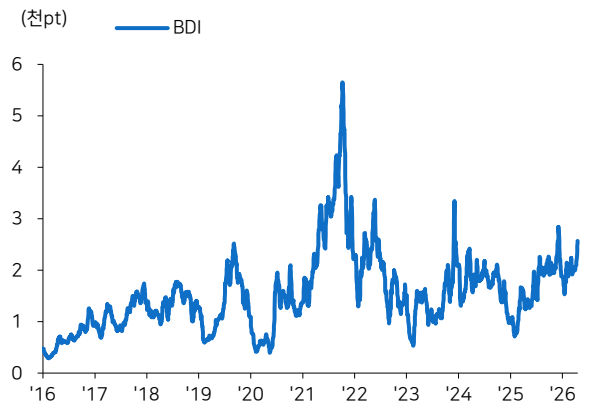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3.6p (+0.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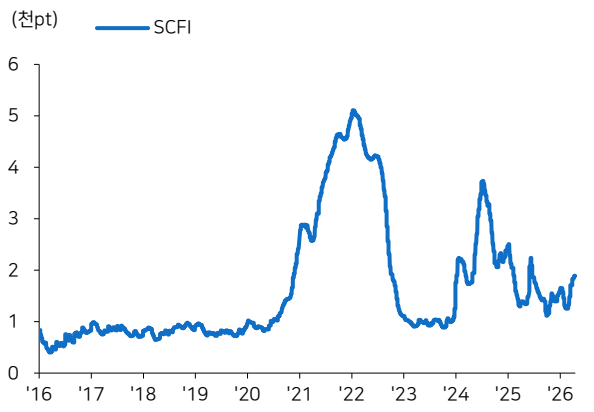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9.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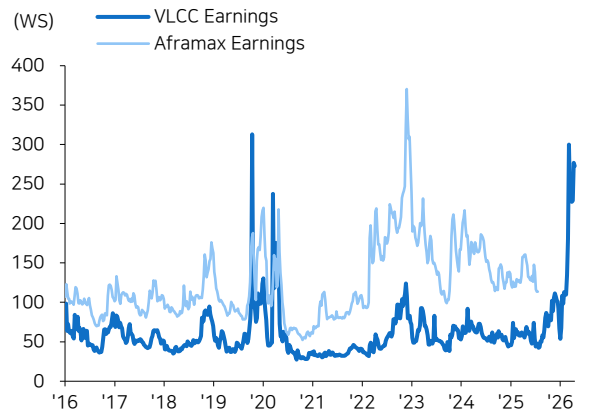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33.0p (+6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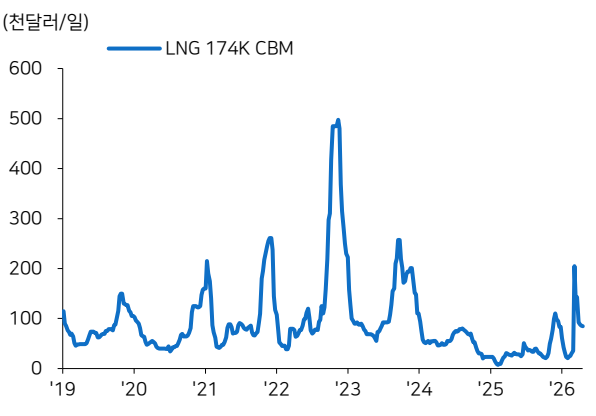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86.5(-4.2 WoW)



VLCC Spot Rate 272.9WS (-4.0p WoW)



LNG Spot 운임 84.5천달러 (-1.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Anduril, HD Hyundai expand partnership with first autonomous surface vessel in production (Defense News) https://zrr.kr/m44hED

HD현대와 미국 Anduril Industries가 자율무인수상정(ASV)의 핵심 설계 검토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첫 번째 시제품 건조에 돌입했다고 보도됨. Anduril Industries는 시제품의 생산부터 운영까지의 전환을 위해 매일 해상 시험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향후 초도 생산 선체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양사는 미국 해상 운송 기업인 Edison Chouest Offshore와 협력하여 미국 내 조선소에서 ASV를 생산할 계획이며, 현재 건조 중인 첫 선박은 올해 10월 진수되어 2026년 말까지 미국 연안에서 시운항 및 테스트를 마칠 예정이라고 알려짐.

HD 현대, 인도 중앙정부 손잡고 현지에 합작조선소 설립 (연합뉴스) https://zrr.kr/hep4zI

HD현대가 인도 중앙정부 산하 기관들과 손잡고 신규 합작조선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으로 HD현대는 인도 항만당국 산하 NSHIP TN 및 금융공사(SMFCL)가 조성하는 조선투자펀드와 함께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조선소 운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특히 인도 정부는 조선소 가동 전 초도 건조 물량을 HD현대의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고 인력을 파견해 노하우를 습득하기로 했으며, HD현대는 국내 기자재 협력사들의 현지 진출과 인도 내 인력 양성 센터 설립을 지원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흔들…한화오션, 두번째 기회 '주목' (뉴스 1) https://zrr.kr/ChRmoL

폴란드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우선협상 대상인 스웨덴 SAAB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계의 재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됨.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SAAB의 최종 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파트너를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최대 8조 원 규모의 이번 사업 판도가 재편될 가능성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해짐. 특히 한화오션이 현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검증된 대형 잠수함 건조 및 MRO 역량을 바탕으로 폴란드 등 유럽 시장 재공략 시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마린솔루션, 싱가포르 물류센터 본격 가동…LX 판토스도 전방위 지원 (더구루) https://zrr.kr/deTMTS

HD현대마린솔루션이 해외 첫 물류 거점인 싱가포르 물류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글로벌 선박 애프터마켓(AM)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에 따르면 이번 거점은 싱가포르항 인근에 약 4,000평 규모로 조성되어 1만 3,000여 개의 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LX판토스와의 협력을 통해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고 부산 사업장과 상호 보완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해짐.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세계 최대 환적항인 싱가포르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리 시간을 단축하고 급증하는 선박 MRO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부산 및 글로벌 주요 항만에 추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고 알려짐.

정부, 디지털화 빨라진 '조선업' 사이버보안 돕는다…HD 현대중공업과 맞손 (뉴시스) https://zrr.kr/rBhWI8

정부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커진 조선업계의 보안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고 보도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1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급망 공격'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해짐. 이번 협약을 통해 KISA는 협력사들에 보안 컨설팅과 모의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HD현대중공업은 위협 정보 전파 및 방어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전략산업 현장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Middle East war postpones anticipated LNG supply glut through 2028, says Vitol (TradeWinds) https://zrr.kr/MvkLXg

글로벌 트레이딩 하우스 Vitol에 따르면 중동 분쟁의 여파로 예상되었던 LNG 공급 과잉 시점이 최소 2년 뒤로 밀려났으며, 2027~2028년 사이 연간 약 2,000만 톤의 공급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QatarEnergy 라스라판 생산 라인 피해(연간 1,270만 톤 규모)와 루와이스 LNG 및 카타르 북부 가스전 확장 사업의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전해짐.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더라도 카타르가 완전 생산을 재개하는 데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며, 현재 발생한 가스 수요 감소의 상당 부분이 비료 산업 등 산업용 가스 섭취 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위기가 식량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